

밀려드는 팽생이모자반 처리 '대략난감'

지난달 5913t 유입되며 지난 한 해 5186t 초과 농가 비료로 소화하고 있지만 처리난은 불가피

올해 1월 제주에 유입된 '팽생이모자반'이 지난 한 해 동안 밀려든 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거된 팽생이모자반은 모두 비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처리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유입된 팽생이모자반은 지난달 31일 기준 총 5913t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0년 한 해 동안 유입된 5186t보다 많은 양이다. 올해 수거된 팽생이모자반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97%인 5740t이었고, 서귀포시는 173t이었다.

1월부터 팽생이모자반이 밀려들면서 행정에서는 연초부터 처리난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 팽생이모자반은 3월부터 6월 사이에 제주 해안으로 유입된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서식하던 팽생이모자반이 지난해 11월부터 북서풍을 타고 북상하기 시작, 올 1월 중순쯤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한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팽생이모자반과 함께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도 문제다. 팽생이모자반이 광범위한 '띠' 형태로 유입되면서 바다에 떠있는 해양쓰레기까지 덩달아 밀려오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팽생이모자반에 엉켜있는 쓰레기를 일일이



3일 지역주민들이 제주도 이호태우해수욕장에서 파도에 떠밀려온 팽생이모자반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때내 재활용 혹은 매립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수거된 팽생이모자반은 도내 농가의 비료로 사용돼 비교적 원활하게 처리되는 편"이라면서도 "비료 수요를 넘어선 팽생이모자반이 들어 닥칠 경우에는 매립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엉켜있는 쓰레기 대부분은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다. 그러나 처리 비용을 중국에 청구하기는 힘들다"며 "이는 정부기

리 해결해야 할 사항"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에서 수거되는 팽생이모자반은 2016년 2441t, 2017년 4407t, 2018년 2150t, 2019년 860t, 2020년 5186t이다. 또 해수부에서는 2022년까지 휴대전화로도 팽생이모자반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2024년까지는 수거·처리 지원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5일 금요일 음 12월 24일 (1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60%
20%	성산	60%
20%	고산	60%
20%	서귀포	60%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 낮 최고기온은 11~12℃로 전망된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고, 산간도로에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7:27	달뜨기 01:06
해질미 18:09	달지기 12:07
물때	간조 10:54
16:18	23:24

주간예보

내일	구름많음	8/15℃
모레	구름많음	8/1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높음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기후변화 대응 생태환경교육 강화 도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통합 생태환경교육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 '다(다)가지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다가지 생태환경교육'은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공동체 생태시민인 아이들이 내면화해야 할 가치(민주시민, 인권, 평화, 안전·건강, 환경·지속가능발전 등)와 연계한 교육이다.

도교육청은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취기준과 생태환경교육 관련 주제를 연계한 매핑자료를 학교에 보급해 교사들이 비교과 연계 주제통합 수업과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연계 수업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후 위기 및 환경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등을 담은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도 본격 운영된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는 기후행동 실천 어플 '기후행동 1.5℃'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와 환경부가 공동 개발한 어플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기후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과제 도전 및 해결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은지기자 dhkang@ihalla.com

초등 담임연임제 확대 아직 멀었다

현황 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등 후속작업 미흡 올해 활성화 위해 담임연임시 전보가산점 부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초등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임연임제' 확대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내 담임연임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교육당국의 후속작업은 미흡한 상황이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인 '기초학력 지원으로 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초등학교 담임연임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 초등학교 담임연임제(1·2학년, 3·4학년, 5·6학년 2년 단위)를 권장하고, 2020년부터는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현황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통계를 잡은 것은 없다"면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부터 활성화를 위해 담임연임제 교사에 대한 전보가산점 부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임연임제'는 담임교사가 맡은 학급을 2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담임을 연임하는 제도다. 학생과의 관계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안정성, 친밀성,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부모와 학생, 교사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2년간 감점이 존재할 수 있고 학생이 많은 친구 및 다른 교사들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제도의 장단점이 명확한만큼 제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일선 현장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도교육청도 공감대 형성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한림초에서 진행하고 있는 담임연임제 시범연구학교 운영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각 학교에 자료를 공유하는 등 공감대 형성 및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한림초가 지난해 6학년을 대상으로 담임연임제를 운영한 결과 새학년 적응이 쉬웠고,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서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오은지기자

경남지역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 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0시를 기해 부산, 울산 등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경남 하동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후 21일 간(최장 잠복기)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홍중호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입 금지 해제지역이라도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가금산물에 대해서는 그 즉시 반입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내 가금농가는 외부인과 차량에 대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농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한편, 감염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謹賀新年

제주건설의 미래! (주)이다종합건설이 선도합니다.

다시, 우리, 함께!
마음껏 꿈꾸고,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 미래를 위해 2021 신축년 새해에도
(주)이다종합건설 임직원 모두는 도민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주)이다종합건설
대표이사 김치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92, 507호(삼도일동, 제동해피존)
TEL. 064)726-5593, FAX. 064)726-5594, E-mail. idacom1@naver.com